

특집논문

3

## 기독교 신앙과 지식의 통합

A Faith-knowledge Integration

신기영(복음학원 사무국장)

I. 서론

II. 현대 인식론과 기독교적 인식론

III. 한 기독교적 인식관

IV. 기독교 신앙과 지식의 통합

## Abstract

This paper pursues to develop a practical guidance for Christian teachers trying to integrate their faith and subject discipline. It was first identified that the modern epistemology has two problems, the 'reduced cognition faculty' and the 'reduced reality.' Although the postmodern attempts to solve the problems, its efficacy is limited to the former only albeit little. First, a Christian epistemology overcoming these problems is suggested. Borrowed from Lonergan's idea, the whole process of knowing is considered to be consisted of cognitive action and faith action. And the reality, object of knowing, is consisted of the Creator and the Created. Knowing of the Creator and the Created is personal knowing, resulting in knowing Truth and essential meanings respectively. Knowing about the Creator and the Created is cognitive knowing, resulting in knowing principals about them. Second, a Christian view on knowledge is also derived from an integration between the compatibilist and transformationalist strategies. Third, a Christian view of 'Faith-Discipline Integration' is suggested.

## I. 서론

진리는 무엇인가? 진리는 지식과 어떻게 다른가? 사람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과정에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삶에서 하나님의 위치는 무엇인가? 지식과 신앙의 통합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 통합은 어떻게 일어나나? 이들은 기독교사를 돕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필자에게 대답해야 할 무거운 질문들이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정리되지 않은 채 내 안에 남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필자 자신이 기독교적 가르침을 현장에서 실천하고 그것을 교사들과 나누면서 조금씩 정리되었다.<sup>1)</sup>

이 글은 몇 권의 책들과 필자의 경험이 빛은 비전문적인 정리이다. 먼저 현대 인식론의 문제와 그에 대한 기독교적 해결안들을 살펴보면서, 기독교적 인식론과 지식관 그리고 통합관에 대한 한 시각을 정리해 보았다.<sup>2)</sup>

## II. 현대 인식론과 기독교적 인식론

### 1. 현대 인식론에 대한 문제 제기

앨버트 그린은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르치기](151쪽, CUP)에서 현대

- 1) 이렇게나마 정리될 수 있었던 것은 통합의 실천을 끊임없이 권면한 Wesley Wentworth 선교사님과 통합을 함께 시도한 이사벨중고등학교와 글로빌고등학교의 동역자들 그리고 이것의 원본 내용에 귀한 조언을 주신 오춘희 교수님과 기독교학교 연구회 선생님들의 공로가 있었다.
- 2) 이 글은 제 18회 기독교문학회에서 발표된 “기독교신앙과 지식의 통합: 글로빌의 시도” (교육, 그래도 희망은 있다! 71-99쪽)를 재구성한 것이다. III에서 나는 기독교신앙과 지식의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훈련과 실천 사례는 위의 원 논문을 참조하라.

인식론의 문제를 의미(자유, 개인의 자율성, 실체)와 사실(결정, 과학, 현상), 이 둘을 통합할 수 있는 개념의 부재라고 지적했다. 계몽주의와 그 산물인 실증주의적 과학이 인식론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이후, 현대인은 사물의 의미에 대한 사색은 멈추고, 관찰 가능한 실재, 즉 사실을 탐구하는 데만 혼신을 다해왔다. 그 결과로 의미와 사실은 분리된 삶의 영역들이 되었고, 이 둘을 함께 포용할 수 있는 길은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 왜 현대시대에 의미와 사실은 분리되게 되었나?

현대성은 개인의 인식력과 이를 통해 얻어지는 지식에 대한 과신 위에 세워졌다.<sup>3)</sup> 인식 주체를 객관적인(가치 중립적) 상태로 보호할 수 있는 인식의 방법으로 판단된 이성을 선택하여, 그 외 다른 인식 방법(계시, 권위, 직관)은 배제되는 경향을 띠었다.<sup>4)</sup> 객관성은 진리의 모든 특성들(보편성, 절대성, 유일성 등)을 녹여 담은 현대적 그릇이 되어, '진리'를 창조주(초월)로부터 떼 내어 피조세계로 끌어내렸다. 이렇게 창조주/본질(의미)이 배제되고 자연/현상(사실)만으로 축소된 실재는 객관화되어 현대적 앎은 객체 안에서 우주의 보편적 원리를 추구하게 되었다.<sup>5)</sup> 요약하자면, 현대인은 앎의 대상에서 창조주를, 인식 방법에서는 이성 외 다

---

3) 현대성에 대한 설명은 주로 Millard J. Erickson, [Postmodernizing the Faith](1998, Baker) 제 1장, 그리고 Walter Brueggemann, Texts Under Negotiation: The Bible and Postmodern Imagination (Fortress 1993) 제 1장을 참조하였다.

4) 그린은 앞의 저서에서 George Knight가 [Philosophy and Education]에서 지식의 근원들로 감각, 계시, 권위, 이성, 직관 등을 지적하면서, 현대인은 감각과 이성을 통해 지식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음을 소개한다(159쪽).

5) Theology and Sociology: A Reader (Robin Gill, 1996, Cassell)에 게재된 "Theology and Symbolic Realism"에서 저자 Robert Bellah는 종교적 상징의 사회학적 이해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초기 자연과학의 기계론적 모델이 실재가 객체 안에 존재하고 주체는 단지 그 객체의 행위를 관찰하여 원리와 규칙을 찾아내어야 한다는 객체-중심의 실재관을 과급시켰다고 정리한다.

른 것들을 배제시킴으로 의미와 사실을 서로 분리시킨 것이다. 필자는 전자를 '실재의 축소'로 후자를 '인식력의 축소'로 일컫고자 한다.

## 2. 후기현대의 한 해결안<sup>6)</sup>

현대인이 기대했던 우주의 보편적인 원리가 인식자의 비중립성으로 인해 형성될 수 없다는 것이 점차적으로 입증되면서, 이성 중심의 인식과 객관성에 대한 의심이 일어났다. 이 현대 인식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후기현대는 현대에서 격하된 '진리' 자체를 부정한다. 그리고 개인의 선호, 신념 그리고 생활방식을 '진리'라고 주장하고, 단지 개인의 해석들, 즉 다양한 작은 이론들만이 존재한다고 본다. 후기현대는 소외되었던 인식방법들인 계시, 권위, 직관 등을 수용함을 통해 그리고 인식의 단위를 개인에서 공동체로 확대함을 통해 현대적 인식력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한다. 이제 모든 지식은 위치와 시각에 의해 조건화되고, 의미는 언어에 의해 형성된다는 가정이 자리잡게 된다.

현대와 비교하여, 후기현대는 현대에 의해 축소된 인식력을 회복시키고는 있으나, 현대가 설정한 축소된 실재를 성찰하고 있지 않다. 즉 현대 인식론의 문제에 대한 후기현대의 해결안도 창조주가 제외된 축소된 실재 안에서 발전된 것이다.

## 3. 기독교의 해결안들

---

6) Millard J. Erickson, [Postmodernizing the Faith](1998, Baker) 제 1장, Michael Jessup, "Truth: The First Causality Postmodern Consumerism," [Christian Scholar's Review] XXX:3: 289-304, Lee Hollaar, "Leadership is Community Building: A Postmodern and Independent School Perspective" 등을 참조하였다.

그린은 앞의 저서에서 현대적 인식론의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해결책으로 두 학자의 노력을 소개한다. Martin은 '신앙에 의한 상상'으로 묘사한 '상상적인 통찰력'의 개념을 개발하였다. 어떤 실재에 대한 지식의 정당성의 근거는 "기다려야만 하는 실재의 현존과 활동의 자기 계시(153-154쪽)"에 의해서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Loder는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배우는 과정에는 '상상의 비약'이 일어난다고 했다. 즉 "의식 저 너머에 있는 실재의 영역으로부터의 중재적인 개입(155쪽)"이 일어난다는 의미이다. 필자는 이 두 학자의 핵심 개념들로부터 현대 인식론에 의해 잊혀진 실재가 인정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것은 바로 창조주이다. 제임스 사이어도 [지성의 제자도]에서 기독교적 인식론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인 의미의 존재로부터 시작된다고 지적한다(103-104쪽). 사람이 알아 가는 대상이 사람의 인식보다 먼저 존재하는데, 가장 최초의 대상이며 다른 대상의 근원이 바로 창조주라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현대적 인식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문제의 뿌리인 '축소된 실재'를 다룬다. 앎의 대상인 실재가 원래의 것으로 회복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그 원래의 모습은 창조주와 피조 세계로 구성된 실재이며, 이 둘은 한 통일된 실재이다. 그리고 창조주를 원래의 위치, 즉 앎의 근원이며 주체로 회복되길 주장한다 이 회복이 앎의 과정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바로 잡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 4. 기독교적 인식론의 기초

##### 1) 앎의 과정

로널드 벨슨은 F. Bernard Lonergan의 앎에 대한 생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사람은 어떤 자료를 경험하고(경험적 수준), 경험한 것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지성적 수준), 이해된 것의 진위를 판단하고(합리적

수준), 판단에 따라 그 특정한 것에 자신의 삶을 참여시키거나 실천하는 책임 있는 결단(책임과 결단의 수준)을 하게 된다.” 그는 첫 세 수준들을 인식자의 자기 지시적 과정으로, 네 번째 수준을 자기 초월적 과정이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전자는 인식적 행위의 수준에 있는 반면, 후자는 신앙적 행위의 수준에 있기 때문이다. 신앙적 행위는 인식자가 더 이상 자신이 아닌 다른 독립된 어떤 것을 붙들어야 하는 조건에서 일어난다. 즉 어떤 형태의 신앙에 기초하여 사람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삶을 헌신하게 된다는 것이다.

필자는 넬슨의 정리에 덧붙여, 전자의 과정에서 사람은 어떤 실재에 대해 알게 되고, 후자의 과정에서 바야흐로 그 실재를 알게 된다고 상상해본다. ‘책임과 결단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은 어떤 실재의 본질, 의미, 목적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실재를 창조하신 자를 향한 신앙이 아니고서는 그것의 온전한 본질과 의미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sup>8)</sup> 창조주를 신앙한다는 것은 그분과의 인격적인 사귀를 통해 그분

---

7) 이 내용은 [기독교적 학문의 실제: 통합연구(CUP) 안에 게재된 로날드 R. Nelson의 “신앙-학문 통합: 양립론자, 개조론자 및 변혁론자들의 전략” 47-48쪽을 참조했다. 흥미롭게도, 이 네 가지 삶의 과정은 Pamela Mackenzie가 편집한 [The Entry Points: for Christian Reflection within Education](1997, Care for Education)에서 소개한 히브리어 ‘야다’의 네 가지 용례와 조화롭게 연관되는 것 같다. 그 첫째는 배워서 아는 것이고, 둘째는 인격적인 사귀를 통해 아는 것이고, 셋째는 선택의 기로에서 바른 것을 분별하는 것이고, 넷째는 책임을 수행하는 것 등이다. 필자의 생각에는, 배워서 아는 것은 경험적, 지성적 수준과, 분별하는 것은 합리적 수준과, 책임 수행은 책임과 결단의 수준과 연관되며, 인격적 삶은 인식적 과정에서 신앙적 과정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8) Lonergan은 사람의 삶의 욕구가 무한정 하다고 했는데(Nelson의 글 49-51쪽), 필자는 그 무한정성의 근거는 바로 사람이 실재의 본질과 의미를 알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무한정한 질문에 응답하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가 결국 본질과 의미의 신적 기원으로 사람을 지향하게 하는 것이다.

을 알아 가는 것을 의미하며, 그 분을 알아가면서 사람은 그분에 의해 창조된 실재가 지닌 본질과 의미 그리고 목적을 알아 가게 된다.

또한 필자는 신앙적 행위의 수준이 인식적 행위 수준과 구분되어 강조함이 인식적 행위 수준에서 일어나는 신앙적 영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인식자는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고 그 설명의 진위를 판단할 때, 어떤 시각을 갖고 행한다. 그리고 시각은 세계관적 가정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따라서 인식적 행위 수준에서도 세계관적 확신이 포함되어 있다. 이 진술의 타당성은 인식자가 세계관적 확신의 개입을 얼마나 의식하고 있는가 보다는 인식 자체에 내재된 본성에 의해 입증된다고 생각한다.

요약한다면, 사람이 어떤 실재를 안다는 것은 어떤 세계관에 근거한 특정 시각을 통해 그것을 이해하고 판단한 것을 신앙적 결단에 근거하여 자신의 삶을 그 지식에 참여시킴으로 그 실재의 본질과 의미를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는 그 신앙적 결단이 그 실재의 창조주와의 관계 안에서 내려질 때만, 그 실재의 본질과 의미를 알게 된다고 주장한다. 사람의 삶은 창조주와의 관계 안에서 온전히 완성될 수 있다. 사람이 어떤 실재에 대해 알아 가는 과정에도 신앙이 개입되고, 그 실재의 특성에 따라 그 개입의 영향은 다양하다.

## 2) 삶의 대상

사람은, 제한적으로나마, '이는 존재'이다.<sup>9)</sup> 이는 온전히 '아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제한적으로 '이는 존재'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 한 통일된 실재를 두시고, 그 안에 삶의 두 대상을 두셨다.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 그 자신이며, 다른 하나는 피조된 창조세

---

9) 제임스 사이어의 [지성의 제자도] 106-107쪽을 참조했다.



계(자연, 사람, 문화)이다. 이 둘은 구분되지만, 분리될 수 없는 한 실재(the Reality)이다.<sup>10)</sup> 이 두 대상의 본질은 각각 진리와 본질적 의미(골 1:15-17)이다. 이 본질은 앞에서 소개한 앎의 신앙적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다.<sup>11)</sup> 앎의 인식 행위 과정 안에 머물러서는 하나님과 피조 세계에 대한 원리를 이는데 그친다.<sup>12)</sup> 한 실재의 본질적 의미를 아는 것은 그 실재의 원리적 이해를 더욱 강화한다. 왜냐하면 원리는 실재의 작동 방식에

- 10) 창조주와 피조물간의 구분은 성경이 강조하는 궁극적인 이원성이다 (리처드 마위, [왜곡된 지식], 113-114, CUP).
- 11) 팔머는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에서, “예수님 안에서 인격적 진리의 패러다임을 발견하기 위해 반드시 그분을 주와 구세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진리는 인격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각 개인의 심장부에 있는 진리의 형상을 긍정하는 것이다(84 쪽).”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그의 ‘진리’는 모든 사람들 -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맺음의 여부를 떠나서 -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인식주체와 대상간의 관계를 통해 긍정될 때 발견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주장은 인식주체와 대상간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그의 논지에 근거를 둔다. 이 진리와 인격적 관계의 무리한 등식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중심 됨을 희석시킬 뿐만 아니라, 비인격적인 대상과의 관계까지 인격화시키는 무리를 범하게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 12) 필자는 창조주의 진리와 피조 세계의 본질적 의미를 창조주와 피조 세계의 원리와 서로 다른 것으로 구분지음으로 제임스 사이어의 부분적인 견해를 수용하지는 않는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지를 이해하는 것과 화학물질로서의 물이 무엇인 지를 이해하는 것은 동일한 지성에 의해 알아진다고 주장한다(지성의 제자도), 112-113쪽). 필자의 생각에, 만약 사이어의 ‘이해한다’가 하나님과 물에 대한 지성적인 작용만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수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두 대상 모두에 대해 사람은 동일한 이성으로 이해를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그 진술이 하나님을 아는 신앙적인 행위 수준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이 수준은 이성을 떠나 자기-초월적 과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 13) 달라스 윌라드는 [하나님의 음성(IVP)]에서 이렇게 주장한다: “하나님의 말씀 - 하나님의 생각과 뜻 - 은 창조된 우주 내에 계속 임재하여 지금도 피조 세계를 붙들고 있다. --- 그렇다면 소위 자연법칙을 세상의 운행 방식에 관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으로 보아야 한다 (185쪽).”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이다.<sup>13)</sup>

창조주와 자연, 사람 그리고 문화의 각 원리를 알아 가는 과정에도 신앙은 개입한다. 생각해볼 점은 신앙적 영향이 각 실재의 원리를 알아 가는데 어떻게 다르게 미쳐지는가에 관한 것이다. 자연은 그 운행과 현상의 관찰에 대한 이성적인 해석(쇠퇴한 자연적 은사)을 통해 어느 정도 그 원리를 알아갈 수 있는 반면에, 사람의 원리는 삶과 현상의 관찰만으로 알아가기 힘들다. 이는 사람들이 그 원리대로 실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데,<sup>14)</sup> 따라서 사람의 원리에 대한 이해는 관찰자의 해석에 많이 의존하게 된다. 또한 제임스 사이어(위의 책, 181쪽)에 의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에 더욱 가까이 있고 그 성품을 드러내는 자이기에 쇠퇴한 자연적 은사와 파괴된 초자연적 은사로는 알아가기 힘들다고 한다. 이 생각들을 종합하면, 인식자의 해석의 개방정도는 자연, 문화, 사람, 창조주로 가면서 더욱 커진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인식자의 해석은 특정 시각에 의해 행해지고, 그 시각은, 인식자의 의식을 넘어, 특정 세계관에 기초한다. 따라서 원리의 이해 과정에서 신앙은 인식자의 해석 개방정도에 비례하여 그 영향이 커지게 된다.

원리를 알아 가는 과정에서 제기 되는 질문은 어떤 실재의 '원리는 무엇인가?' 이다. 현대인은 원리 알기에 그 탐구의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sup>15)</sup> 이성은 원리를 어느 정도 바르게 알아갈 수 있게 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 원리가 진리에 의해 창조되었고 본질적 의미를 지향하고 있음과

---

14) C. S. 루이스, [내가 믿는 기독교 22-27쪽(대한기독교서회)을 참조함.

15) 팔머의 객관주의적 교수방법에 대한 비평은 원리 지향적 삶의 현대적 습관이 왜 일어난지에 대한 유익한 분석을 제공한다(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제 3장 참조). 이국화된 삶의 과정에서는 인식주체의 회심과 지식의 실천이 요구되지 않는다. Lonergan이 제시한 '책임과 결단의 수준'으로 나아가길 주저하는 현대지성인은 자신을 헌신으로 도전하지 않는 원리만을 지식의 대상으로 삼게 된 것이다.

원리 탐구에 신앙적 영향이 개입됨을 부인한다. 원리의 근원이 배제된 원리 파악의 노력은 그 과정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수많은 상호 모순된 '사회적 원리들'을 낳게 한다. 이 중에는 바른 설명들도 있으나, 많은 왜곡된 것들과 함께 섞여 있다. 이 상호 모순된 견해들을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현대인으로 하여금 '사회적 합의'에 소망을 두게 하여, 결국 다원주의(모순된 세계관들의 병존)와 상대주의(모든 가치는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의 세상으로 만든다.<sup>16)</sup>

진리를 알아 가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바른 질문은 '진리는 누구인가?'이다.<sup>17)</sup>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격이기 때문이다. 진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 사귄을 통해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면서 알아진다. 인격적 닮아짐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고 그 설명의 진위를 판단하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 순종함으로 일어난다.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간의 인격적 대화를 낳고 사람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의해 깎이어 그분의 인격이 그 사람 안에 자리잡게 된다. 피조 세계의 본질적 의미는 진리에 의해 세워진 의미로 그의 인격이 그 안에 들어 있다. 따라서 진리와 본질적 의미는 사람의 마음에 인격으로 자리잡는다.

## 5. 요약 및 정리

16) 제임스 사이어의 [홍길동 대학에 가다](IVP) 제5장을 참조함.

17) 이 질문이 현대인에게 생소한 것은 현대의 객관성 강조가 진리관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지식의 객체성이 진리의 정체성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그 인격성을 알아갔다. 알리스터 맥그래스의 현대적 진리관에 대한 분석은 더욱 이 영향을 드러내 준다: 계몽주의는 명제적 정확성에 기초한 진리관을 세움으로 인지적/명제적 진리관을 성장시켰다 (복음주의와 기독교적 지성 IVP, 193-195쪽).

현대의 기둥인 이성과 객관성은 먼저 진리를 창조주로부터 분리시키어 객관적인 피조세계의 원리로 격하시켰다. 창조주로부터 이탈된 '진리'는 그 내부 구조적 특성과 축소된 실재와의 관계 안에서만 확증 받게 되었고, 진리의 초월성과 인격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성적 이해의 강조는 앎의 과정에서 신앙적(인격적) 차원을 분리시켜 버림으로 앎의 결단과 실천을 약화시키게 했다. 또한 후기현대는 현대에서 축소된 인식력을 다시 확장시킨 반면, 축소된 실재를 더욱 축소시키는 경향으로 나간다.<sup>18)</sup> 왜냐하면 현대에서 객관화된 '진리'마저도 부정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상대성이 후기현대의 한 기둥임을 발견한다. 개인 인식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안으로 주장된 공동체는 구성원 개인들의 집합일 뿐이며, 사실상은 더욱 강화된 개별성을 덮고 있는 은폐 개념일 뿐인 것으로 보인다. 상대성은, 현대에서 왜곡되었지만 그래도 유지되었던 진리의 특성들(보편성, 절대성 등)을 약화시킨다. 상대성은 의미의 새로운 근원을 언어에서 찾지만, 언어와 의미의 결합을 자의적이며 문화적 여건의 우연성에 둬므로 해체로 던져 버린다.<sup>19)</sup> 현대와 후기현대의 인식론을 점검하면서 이 둘의 공통된 문제를 발견한다. 그것은 '실재의 축소'와 그로 인한 앎의 왜곡이다. 현대적 앎의 왜곡은 진리의 왜곡이고, 후기현대적 앎의 왜곡은 '진리'의 부정이다. 이 둘은 모두 '창조주 인정의 실패'에 그 근원적 원인을 둔다.<sup>20)</sup>

이 비평을 기초로 필자는 한 기독교 인식론의 기초를 다음과 같이 정

---

18) 이것은 후기현대의 내적 모순을 드러낸다. 어떻게 더욱 축소되는 실재의 상황에서 의도된 인식력의 확장이 가능할 수 있는가?

19) 알리스터 맥그래스의 [복음주의와 기독교적 지성](IVP) 203쪽을 참조했다.

20) 팔머는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에서, 현대지식의 실패는 아는 것을 적용하는 문제에서의 실패라 기보다는 사랑의 관계로부터 소원해진 앎 그 자체의 실패라고 보았다 (31쪽).

리한다. 첫째, 앎의 대상에는 창조주와 피조 세계(자연, 사람, 문화)가 있고, 이 둘은 하나의 통일된 실재이다. 창조주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더 우선적으로는 앎의 근원이다. 왜냐하면 실재의 본질과 그 원리 모두는 '창조주와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 계시되기 때문이다. 둘째, 앎은 그 차원에 따라 그 내용과 역동이 다양하다. 인격적 차원(결단과 책임)에서 사람은 창조주의 진리와 피조 세계의 본질적 의미를 인격화하게 되고, 인식적 차원(경험, 이해, 판단)에서 사람은 창조주와 피조 세계에 대한 원리를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이 두 차원은 앎의 한 과정 안에 통합되어져야 한다. 셋째, 실재를 아는 것(인격적 차원)은 신앙적 행위이며, 실재에 대한 앎(인식적 차원)도 신앙적 전제 위에 세워진다.

### Ⅲ. 한 기독교적 지식관

'축소된 실재'를 회복시키기 위해 기독교학자와 기독교사가 기울이는 노력은 '기독교신앙과 지식의 통합'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따라서 이 통합의 노력은 현대인식론의 문제를 극복하는 한 방안이다. 이 통합의 의미는 기존 지식에 신앙적 통합이 없기에 신앙으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어떤 비기독교신앙으로 통합되어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기독교신앙 안에서 조명하여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 진술은 이

---

21) 통합에 대한 다양한 이해들이 있다. 케네스 헤르만은 [기독교신앙과 전공과목](IVP) 제 4장에서 기독교학자들이 시도하는 통합의 세 가지 일반적인 유형들(기독교적 연구 주제 선정, 기독교신앙과 조화되는 지식의 수용, 신앙으로 선별된 지식으로 새로운 지식 창출)을 소개하고 각각에 대한 비평을 내리고 있다. 아더 홈즈는 [기독교대학의 이념](CUP) 제 5장에서 통합의 네 가지 차원들, 태도적, 윤리적, 기초적, 세계관적 차원을 소개한다. 올프는 [기독교적 학문의 실제: 통합연구](CUP)에 게재된 "통합

미 통합에 대한 특정한 접근을 가정하고 있다.<sup>21)</sup> 필자는 로날드 넬슨이 소개한 양립론과 변혁론 둘 다를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통합의 한 시각을 세우고자 한다. 양립론은 기독교신앙과 기존 지식이 공유한 양립적 요소들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이들을 찾아서 통합하려는 시도이며, 변혁론은 신앙의 가정으로 기존 지식을 조명하여 변화시키려는 시도이다.<sup>22)</sup> 양립론은 기존 지식 중에서 기독교신앙과 공유될 수 있는 지식에 그 통합의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변혁론은 기존 지식 중에서 기독교신앙에 의해 회복되어야 하는 지식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sup>23)</sup>

---

과 의사통합 사이의 경계”에서 학문의 가정 점검, 학문의 가치 점검, 조직적 도식들 등을 소개한다. 앞에서 소개된 로날드 넬슨은 통합의 전략들, 양립론, 개조론과 변혁론을 소개한다.

22) 대략적인 관찰에 따른 필자의 초보적인 상상은 양립론자의 군에는 주로 자연과학자들(예, 두뇌생리학자 MacKay, 수학자 Heie 등)로 구성되고, 변혁론자의 군에는 신학자, 인문사회과학자들로 구성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실제에 대한 해석개방의 정도가 지식의 왜곡 의식을 그 학문공동체에 속한 기독교인들에게 다른 정도로 불러일으킬 것으로 추측하기 때문이다.

23) 필자는 지식을 문화의 한 부분으로 보고, 이 세상의 지식을 스티브 몬스마 편저, [책임 있는 과학기술(CUP), 120-121과 조종남 편저, 복음과 문화(IVP), 72-73쪽을 참조하여 아래의 범주들로 정리해 본다. 통합의 대상이 되는 지식은 이들 가운데 일부분임을 강조한다. 첫째, 창조주께서 친히 세우신 지식의 내용이 있다. 둘째, 계시(일반 계시 또는 특별계시)에 순종함으로 얻어진 것으로 생각되는 지식의 내용이 있다. 셋째, 계시에 불순종함으로 얻어진 것으로 생각되는 지식의 내용이 있다. 이들 중에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변혁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넷째, 계시에 대한 신학적 해석들에 있어서 위의 범주 중 하나로 일관된 판단을 내리기 힘든 내용들이 있다. 다섯째, 계시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들도 있다. 또한 지식은 다양한 문화적 차원들(세계관, 가치기준, 관습, 제도, 의사소통양식 등)에서 형성된다. 세계관은 가치기준에 스며있고, 세계관과 가치기준은 관습의 근간이 되고, 제도는 이 관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들의 모임을 통한 한 사회는 통합된 체계로 세워진다. 의사소통양식은 이런 차원들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담화를 가능하게 함으로, 제도화와 변화를 일으키는 매체가 된다.

이 두 접근을 종합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이 통합의 한 시각을 마련하고자 한다. 우선 지식을 창조주(신), 자연, 사람과 사람들(사회) 그리고 문화의 원리에 대한 사람들의 진술된 이해로 정의한다. 그리고 원리는 모든 사람에게 어느 정도 알 수 있도록 열려져 있다고 본다. 따라서 기존 지식 중에서 인식적 차원에서 기독교신앙과 공유될 수 있는 지식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공유될 수 있는 지식 중에는 실재의 본질(창조주의 진리, 피조 세계의 본질적 의미) 안에서 해석되어지지 않거나, 유사본질에 근거한 시각으로 해석되어진 채로 남겨져 있는 지식도 있다. 또한 기존 지식에는 기독교신앙과 공유될 수 없는 왜곡된 지식도 있다. 이 공유될 수 없는 지식과 왜곡된 지식 모두는 기독교신앙에 의해 회복되어야 할 지식이다. 이 회복은 진리의 인격으로 자라는 사람이 구비하게 되는 '기본적 지평(인격, 시각)'에 의해 이런 지식이 조명되고 변형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조명과 변형의 과정에는 기독교신앙인의 '기본적 지평'과 (그 자신이 속해 있거나, 통합하려는 특정 지식을 형성시킨) 학문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상대적 지평' 간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이 일어난다.<sup>24)</sup> 이런 역동을 통해 실재의 원리에 대한 많은 지식은 그 실재의 본질을 알아가는 사람에 의해 회복되어 바른 원리로 세워지게 된다. 이 통합의 과정이 사실(과학적 지식의 대상과 그 지식 자체)과 그것의 의미(과학적 지식의 대상인 실재의 본질적 의미)를 다시 함께 묶어주는 기독교적인 한 방안인 것이다.

위의 진술을 기초로 하여 한 기독교적 지식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지식은 사람들이 창조주와 피조 세계에 대한 원리를 탐구하며 축적한 진술의 집합으로 본다. 둘째, 모든 지식은 다음의 이유로 존중되어야 한다: 1) 원리를 알아감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도록 창조주께

24) 벨슨의 책, 55-59쪽 참조함.

서 지으셔서 사람들에게 의해 형성된 것이고, 2) 이미 교사와 학생의 지식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기존 조건으로 수용하고 점차적으로 다루어 가는 것이 요청되고, 3) 기독교학교에서 양육된 학생들이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 지식을 가져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돕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그러나 지식에는 기독교신앙과 공유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왜곡된 지식)이 있다. 공유될 지식 중에는 실재의 본질(진리와 의미)에 분명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것도 있다. 본질적 의미로 해석되지 않은 지식과 왜곡된 지식은 기독교신앙과의 통합이 필요하다.

#### IV. 기독교신앙과 지식의 통합

통합은 기존 지식이 개입되는 다양한 장에서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지식의 나눔을 중심 역동으로 두고 있는 학교의 장에 초점을 두고 통합의 실제적 과정을 살펴보려고 한다.

##### 1. 통합의 출발: 기독교사의 소명

교사는 자신이 전공한 학문의 지식을 배우고, 그 학문 중에서 일부를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게 된다. 배운 지식과 가르치는 지식 모두에 왜곡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 왜곡됨은 지식의 내용뿐만 아니라, 교수방법에도 있다. 교사는 진리를 닦아가면서 형성되는 기독교적 시각을 통해 왜곡됨을 발견하게 된다. 통합이 출발하는 환경은 왜곡된 가르침이고, 통합이 추구하는 목표점은 가르침의 회복이다. 그리고 가르침의 회복은 점진적인 과정이다. 이것은 마치 한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조금씩



성숙해지듯이, 가르침도 회복의 목표를 향해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다. 회복의 시작은 교사의 회심에서부터 일어난다. 이것은 기독교인으로서의 회심이 아니라, 기독교사로서의 회심을 의미한다. 기독교사로서의 회심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독교사로 부르셨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다. 소명의 확신은 교사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가게 되는 과정으로 어떤 외부적 난관과 자신의 나태함을 극복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가르침의 장에 초대받은 확신에 찬 기독교사는 자신의 신앙을 소명의 자리 한 복판에 적용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부음을 받아 이 적용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 2. 통합의 장: 공동체

통합이 일어나는 장은 여러 기독교사들로 구성된 교사공동체이다. 이는 통합이 기독교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기에 다른 기독교사들의 동역이 요청되며, 통합에는 세계관적으로 회복되는 각 교과지식이 다른 교과지식과 상호 연결되는 것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통합의 공동체적 노력은 그 구성원인 교사들간의 지체의식 안에서 가능해진다. 서로를 향한 조언과 요청이 평안함으로 지체들 안에 오고가야 한다. 따라서 한 학교 공동체의 통합 시도는 교사공동체의 건실한 형성에 의해 조건화된다. 동료교사의 조언을 향해 열려진 마음은 학생들의 창의적 반응을 수용하는 교사의 마음으로 이어진다.

## 3. 통합의 훈련

필자는 통합이 자연스런 것이기보다는 의도적인 훈련의 산물이라고 본다. 기독교사로의 거듭남은 통합의 책임감과 통합의 시각을 불러 넣어

준다. 이런 능력이 지식을 향해 다가가는 것은 기독교사의 의도적인 적용에 의해 일어난다. 왜냐하면 통합이 기독교사 안에 체질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이웃사랑이 의도적인 훈련에 의해 우리 안에 체질화되는 것과 같다. 체질화되어 가면서 통합은 자연스럽게 작동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 지속적인 훈련이 요청된다. 이 훈련의 기초 부분은 교사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다. 통합의 능력은 창조주의 진리를 닮아 가는데서 얻어지기 때문이다. 교사 안에 진리가 인격화되면서, 피조 세계의 본질적 의미와 목적을 알아가게 되며, 이를 통해 실재의 원리에 대한 바른 시각을 발전시킬 수 있다. 창조주의 성품은 그의 말씀 안에 들어 있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안에 담긴 그의 성품을 교사들은 닮아가게 된다. 따라서 순종의 훈련은 영적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 이와 함께 자신의 전공학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주어진 교제가 제공하는 지식이 그 학문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자신 안에 자리 잡는 그리스도의 인격 위에 발전되는 시각을 갖고 그 주어진 지식의 가정과 주어진 교수 목표를 점검하게 된다.

#### 4. 통합의 결실

훈련과정을 통해 기독교사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더욱 요청됨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 이것은 교사들이 갖게 되는 부담감과 이로 인한 중보 기도의 간절한 요청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이런 분위기는 수업지도안의 초안이 발표될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욱 심화된다. 교사들은 우선 자신의 몸에 베인 시각의 틀과 지식과의 영적 전쟁을 시작으로 그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를 간절히 초대하게 된다. 이 통치의 초대는 교수방법으로까지 확대된다. 학생들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하여, 세

계관적 성찰을 통과한 지식을 준비하고, 배운 지식을 한번 실행해 보게 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창의적으로 적용해보게 하여 지식을 확장시키는 것,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을 갖게 하여 신앙적 결단으로 유도하는 것은 진정 교사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다. 교사의 삶에서 중심된 부분인 '지식의 가르침'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초대되면서, 교사 자신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더욱 깊이 체험하게 된다.

기독교적 가르침은 교사와 학생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을 둔다. 기존 지식의 기독교 신앙적 통합은 기독교사의 준비된 수업내용이 준비된 방법으로 학생들과 나누어질 때 비로소 일어난다. 이는 삶의 과정이 인식적 차원과 함께 인격적 차원으로 나아가 갈 때 완성되기 때문이다. 기독교사는 자신이 통합적으로 준비한 지식을 동료교사들 또는 학생들과 나눌 때, 온전한 통합으로 나아감을 깨닫게 된다. 동료교사들의 조언과 학생들의 창의적 반응을 통해 자신이 소개한 지식이 더욱 온전한 통합으로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지식을 나누어 가진 자들 속에 일어나는 인격적 변화, 즉 지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통합의 과정이 어디까지 포함하고 있는지 깨닫게 된다. 이 인격적 변화는 그 나눔 가운데 역사 하신 분이 만들어내신 것이다. 이는 기독교사로 하여금 '기독교신앙과 지식의 통합'을 인식적 차원에 가두어 두지 않고 인격적 차원으로 확대시키게 한다. 기독교사의 사역의 장은 삶 그 자체이다. 통합된 지식의 나눔은 삶의 변화를 일으킨다.

## 5. 한 기독교적 통합관

위의 진술들에 기초하여 한 기독교적 통합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통합은 진리를 닮아 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적 인격과 그 안에서 세워지는 공유된 시각이 지식에 적용될 때 시작된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공동체가 공유한 기독교세계관과 시각의 시금석이 된다. 둘째, 통합은 기독교사가 개인의 통합 작업에서 갖게 되는 질문들과 그 작업의 결과물을 동료 교사들 또는 학생들과 함께 나눌 때, 인격적 변화의 결실로 언젠가 드러나고, 그때 완성되는 과정이다. 셋째, 공동체가 축적하는 통합된 지식은 공동체의 인격성장과 시각개발에 의해,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되는 지식과 그에 대한 비평을 통해 지속적으로 새롭게 확장된다.

---

**신기영** 박사는 성균관대 법정대학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대학원을 거쳐 미국 아리조나주립대에서 석사와 박사학위(종교사회학)를 했다. 현재 부산 이사벨중고, 지구촌고등학교(선교사자녀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학교법인 복음학원의 사무국장이며, 장신대 기독교와 문화의 겸임교수로 있다. 주요 사회학적 연구물로는 “한국기독교의 민족주의, 1885-1945”, “한국 개신교와 문화의 관계변화, 1885-1995(한국사회학)”과 “Christianity, Nation-Building, and the State in Colonial Korea, 1910-1945(KSSJ)” 등이 있고, 최근엔 기독교 교육과 학교설립과 법인 경영에 대한 글들도 적고 있다. glens@chollian.net.